



발표일 : 2017년 3월 31일

해양기상

- 최근 5년간(2012~2016년) 4월 상순과 중순에는 대부분의 해상에서 파고가 약간 높았으나, 서해중부해상은 상순부터, 서해남부해상은 중순부터 낮았음. 4월 하순에는 대부분 해상에서 파고가 낮았지만, 일부 남해해상과 동해해상은 파고가 약간 높았음.

※ 물결이 낮음(1.0m 미만), 약간 높음(1.0~2.0m 미만), 높음(2.0~3.0m 미만), 매우 높음(3.0m 이상)

- 최근 5년간(2012~2016년) 4월의 풍랑특보 월평균 발표 일 수는 6.4일로 3월보다 1.0일 감소하였으며, 상순(2.8일)에서 중순(1.9일), 하순(1.8일)으로 갈수록 발표 일 수는 적어지는 추세임.

☞ 해상 정보는 해역별 최근 5년(2012~2016년) 평균 유의파고의 순별 평균값 및 풍랑특보 발표 일수임

- 서해안의 인천은 4월 28일에 935cm의 고극조위가 나타나며, 남해안의 완도는 4월 27일에 404cm, 동해안의 포항은 4월 30일에 35 cm의 고극조위가 나타나겠음.

해양안전

- 갑작스런 기상 불량에 대비한 안전 운항 및 조치
- 낮과 밤의 기온차로 인한 안개 발생에 유의
- 본격적인 성어기에 대비하여 선체 및 기관 등 사전 정비
- 환절기 화재사고 예방에 철저
- 유도선·납시어선 안전항해 준수
- 1인 조업선 등 소형어선의 자체 안전대책 강구 철저

어업기상

- 4월의 연안 월평균 수온은 동해가 9~16℃로 평년보다 1~2℃ 범위의 높은 수온분포를 보이고, 남해 11~16℃, 서해 8~14℃로 각각 평년보다 1℃ 내외의 높은 수온분포를 보일 것으로 전망

· 동해 : 9 ~ 16 ℃ · 남해 : 11 ~ 16 ℃ · 서해 : 8 ~ 14 ℃

▶ 최근 5년('12~'16년) 4월 순별 파고



그림 1. 최근 5년간(2012~2016년) 4월 해역별 유의파고 특성

- ☞ 파고정보는 해역별 해양기상부이의 최근 5년(2012~2016년) 평균 유의파고의 순별 평균값을 활용
 - 서해중부(덕적도, 외연도), 서해남부(칠발도)
 - 남해서부(추자도, 거문도), 남해동부(거제도), 제주도 남쪽(마라도)
 - 동해중부(동해, 울릉도), 동해남부(포항)

▶ 최근 5년('12~'16년) 4월 지점별 파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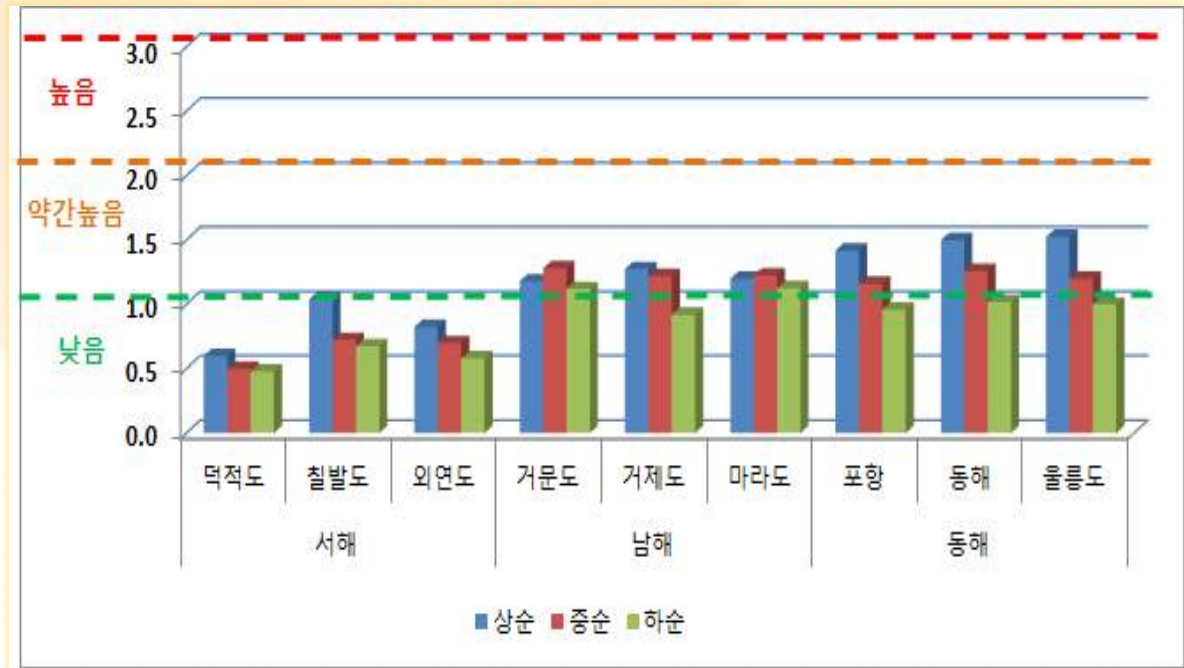


그림 2. 최근 5년간(2012 ~ 2016년) 4월 순별 파고 관측값

○ 최근 5년 4월 순별 파고 특성

- 4월 상순 : 서해중부해상(덕적도, 외연도)을 제외한 전 해상(덕적도, 외연도, 칠발도, 거문도, 거제도, 동해, 울릉도, 포항, 마라도)에서 파고가 약간 높았음.
- 4월 중순 : 거의 모든 해상(거문도, 거제도, 동해, 울릉도, 포항, 마라도)에서 파고가 약간 높았으나, 서해중부(덕적도, 외연도)와 서해남부(칠발도)해상은 낮았음.
- 4월 하순 : 서해해상(덕적도, 외연도, 칠발도)과 남해동부(거제도), 동해남부(거제도)해상에서는 파고가 낮았고, 남해서부(거문도), 동해중부(동해, 울릉도), 제주도(마라도)해상에서는 파고가 약간 높았음.

○ 최근 5년 4월 파고 최고, 최저 해역

- 가장 높았던 해역 : 동해중부해상(울릉도) / 1.53m(상순)
- 가장 낮았던 해역 : 서해중부해상(덕적도) / 0.48m(하순)

▶ 최근 5년('12~'16년) 및 2016년 4월 풍랑특보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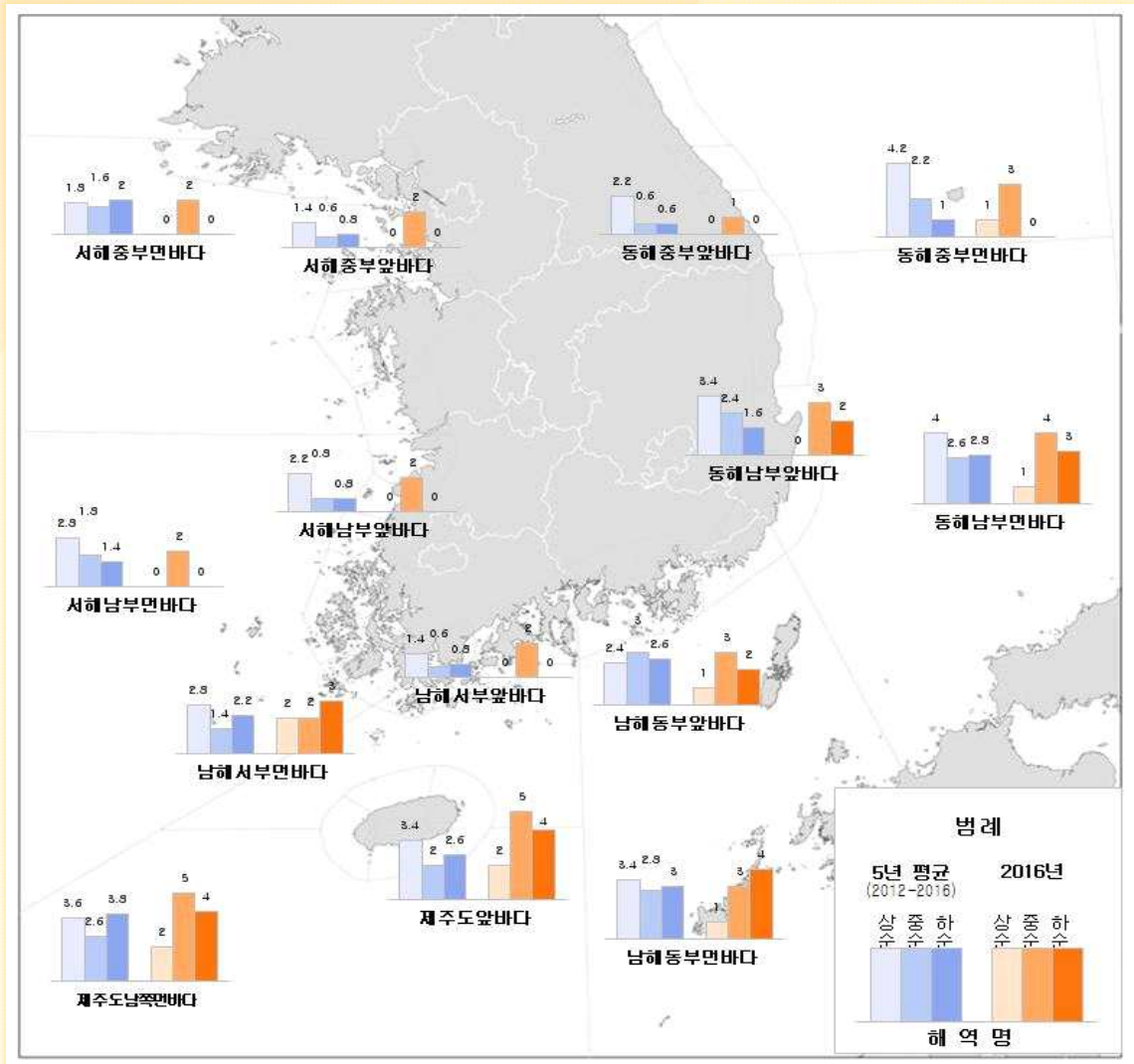


그림 3. 최근 5년(2012~2016년) 및 2016년 4월의 풍랑특보일수(상순, 중순, 하순)

- 최근 5년 4월 풍랑특보 평균 발표 일수 : 6.4일 / 지난 달 보다 감소 (3월 평균 : 7.4일)
- 4월 순별 특보 평균 발표 일수 비교
 - 최근 5년 평균 : 상순 2.8일 / 중순 1.8일 / 하순 1.9일
 - 지난해(2016년) : 상순 0.7일 / 중순 2.6일 / 하순 1.5일
- 최근 5년간 4월 풍랑특보 일수 최다, 최소 해역
 - 가장 많았던 해역 : 제주도남쪽면바다 / 평균 10.0일 발표
 - 가장 적었던 해역 : 서해중부앞바다, 서해남부앞바다 / 평균 2.8일 발표

▶ 지난해(2016년) 4월의 해양기상부이 해상풍 및 파고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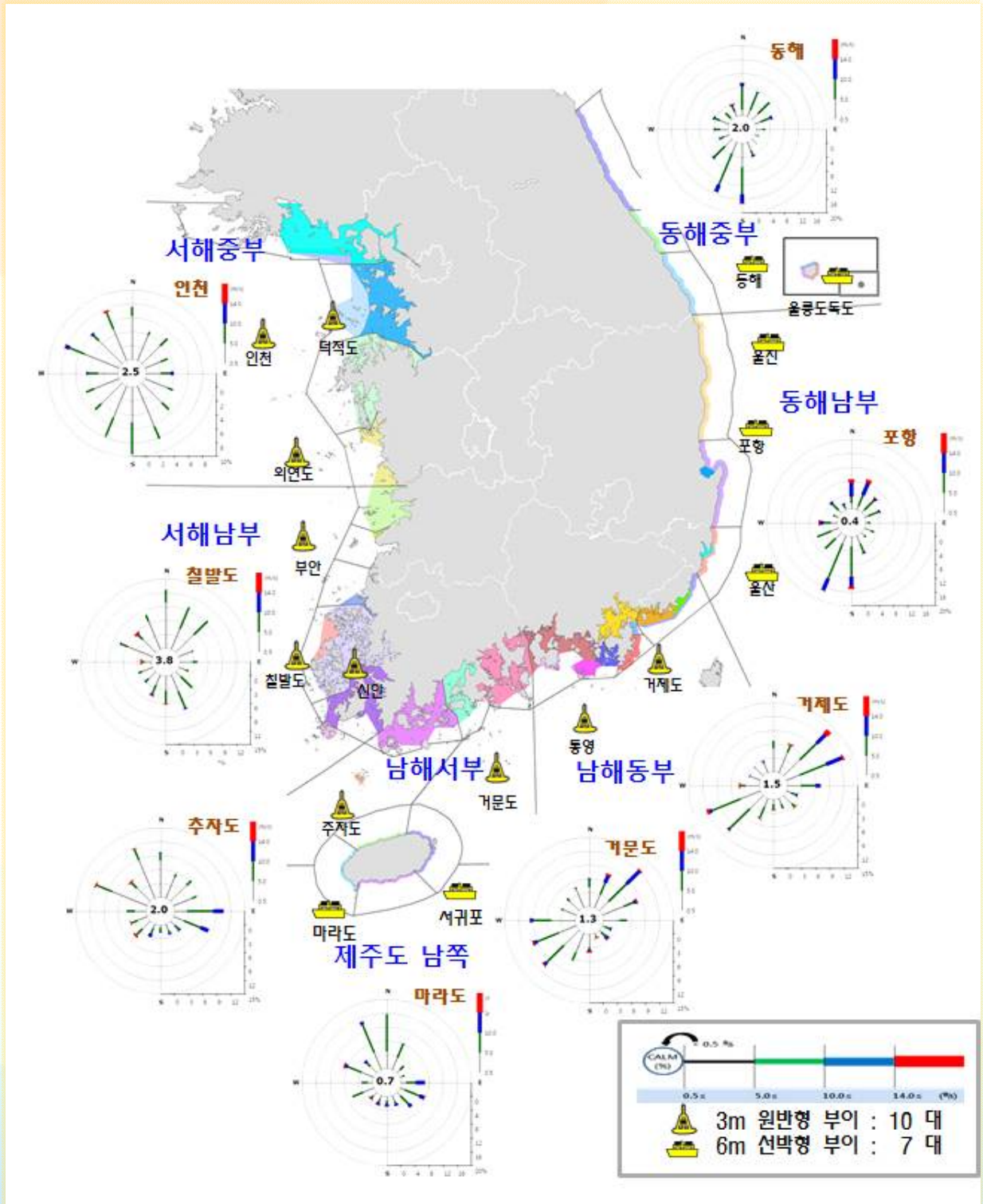


그림 4. 해양기상부이 2016년 4월 해상풍 바람장미

☞ 해양기상부의 전체지점에 대한 해상풍 바람장미는 부록1. 을 참고

2016년 4월의 해역별 풍속 계급별 분포

해역구분	주풍계	풍속(m/s) 분포(%)					비고 (관측지점)
		Calm	0.5~4.9	5.0~9.9	10.0~13.9	14.0≤	
서해중부	-	5.7	68.0	24.1	1.9	0.4	덕적도, 외연도, 인천
서해남부	-	3.7	68.4	25.8	1.3	0.8	칠발도, 부안, 신안
남해서부	남서, 북동	1.6	55.7	33.3	7.5	1.8	추자도, 거문도
남해동부	남서~남동	1.1	49.7	36.9	9.3	3.1	통영, 거제도
동해중부	남서, 북동	1.4	34.5	55.6	7.3	1.2	동해, 울릉도
동해남부	남서, 북동	0.7	28.6	50.7	16.5	3.4	울진, 포항, 울산
제주도남쪽	북서~북동	1.4	40.5	47.6	8.9	1.7	마라도, 서귀포
전해상		2.4	50.4	38.1	7.4	1.7	

- 주풍계 : 남해상과 동해상은 남서풍, 북동풍이 우세하나 서해상은 주풍계가 없음
- 전해상 풍속 : 5.0m/s미만 52.8% / 0.5~4.9m/s 38.1% / 10m/s 이상 9.1%
- 풍속 분포 최고, 최소 해역
 - 5.0m/s 미만 : 서해중부해상(73.7%) 주풍계 없음
 - 10.0m/s 이상 : 동해남부해상(19.7%) 남서풍, 북동풍 우세

2016년 4월의 해역별 파고 계급별 분포

해역구분	파고(m) 분포(%)					비고 (관측지점)	
	<1.0m	1.0~1.9m	2.0~2.9m	3.0~4.9m	>=5.0m		
서해중부	91.0	7.2	1.3	0.4	0.0	덕적도, 외연도, 인천	
서해남부	93.8	4.1	1.1	1.0	0.0	칠발도, 부안, 신안	
남해서부	65.5	24.6	7.5	2.4		추자도, 거문도	
남해동부	54.4	33.7	9.0	2.9		통영, 거제도	
동해중부	40.8	52.9	4.0	1.9	0.5	동해, 울릉도	
동해남부	41.2	46.3	8.7	3.4	0.4	울진, 포항, 울산	
제주도남쪽	53.0	33.0	9.7	4.3		마라도, 서귀포	
전해상		64.9	27.2	5.5	2.2	0.1	

- 전해상 파고 : 1m 미만이 64.9%, 1~2m미만이 27.2% 로 파고가 대부분 낮은의 분포를 보였으나 동해해상은 파고가 약간 높음의 분포를 보임
- 파고 분포 최고, 최소 해역
 - 1.0m 미만 낮은 파고 : 서해남부해상(93.8%), 서해중부해상(91.0%)
 - 3.0m 이상 매우 높은 파고 : 제주도남쪽해상(4.3%), 동해남부해상(3.8%)



▶ 4월 조석예보

서해안의 인천은 4월 28일에 935 cm의 고극조위가 나타나며, 남해안의 완도는 4월 27일에 404cm, 동해안의 포항은 4월 30일에 35 cm의 고극조위가 나타나겠음.

■ 4월 지역별 고극조위

해역	지역	대조기(망 4.11)		대조기(삭 4.26)	
		발생시각	고극조위(cm)	발생시각	고극조위(cm)
서해안	인천	05:06	847	04:37	881
	안흥	04:06	621	03:32	663
	군산	03:22	646	02:50	677
	목포	02:20	425	01:50	449
남해안	제주	23:13	247	22:54	283
	완도	22:38	347	22:20	392
	마산	21:25	177	21:07	201
	부산	20:57	111	20:39	128
동해안	포항	16:26	20	15:30	27
	속초	03:09 15:17	23	14:44	28
	울릉도	02:56 14:49	17	14:15	22

☞ 2017년 조석표(한국연안)는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www.khoa.go.kr), ARS(1588-9822), 조석예보 앱(Android)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월 지역별 조위 시계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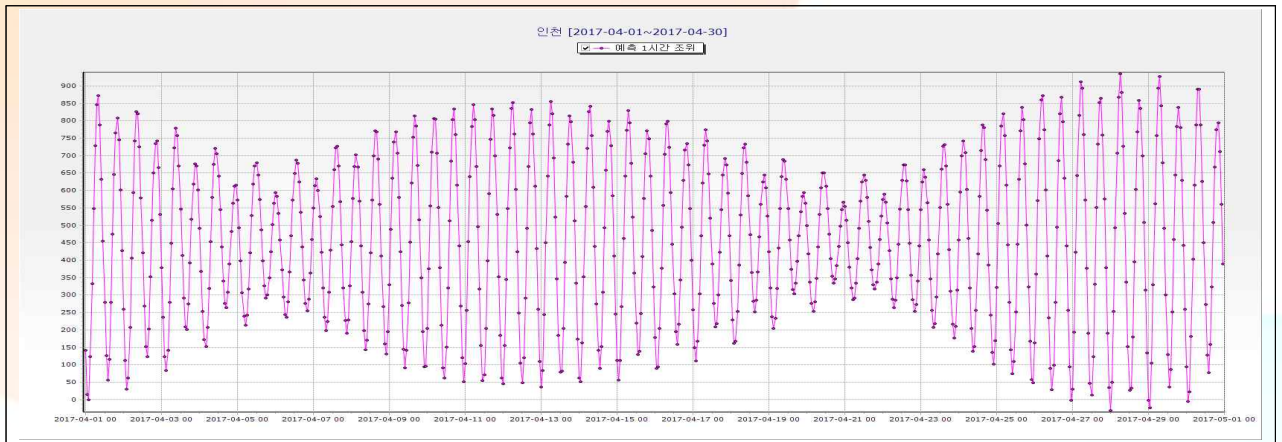


그림 1. 2017년 4월 서해안 인천지역 조석예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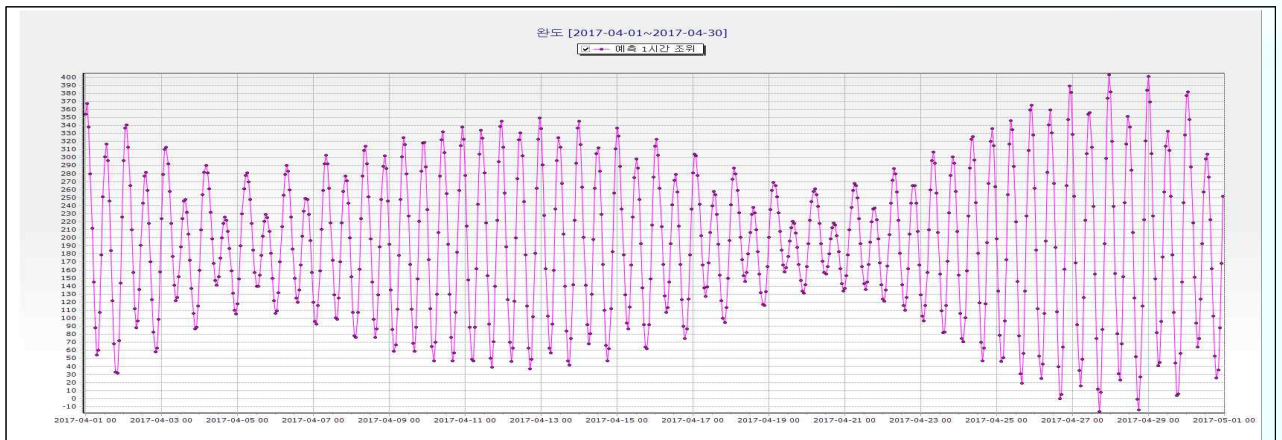


그림 2. 2017년 4월 남해안 완도지역 조석예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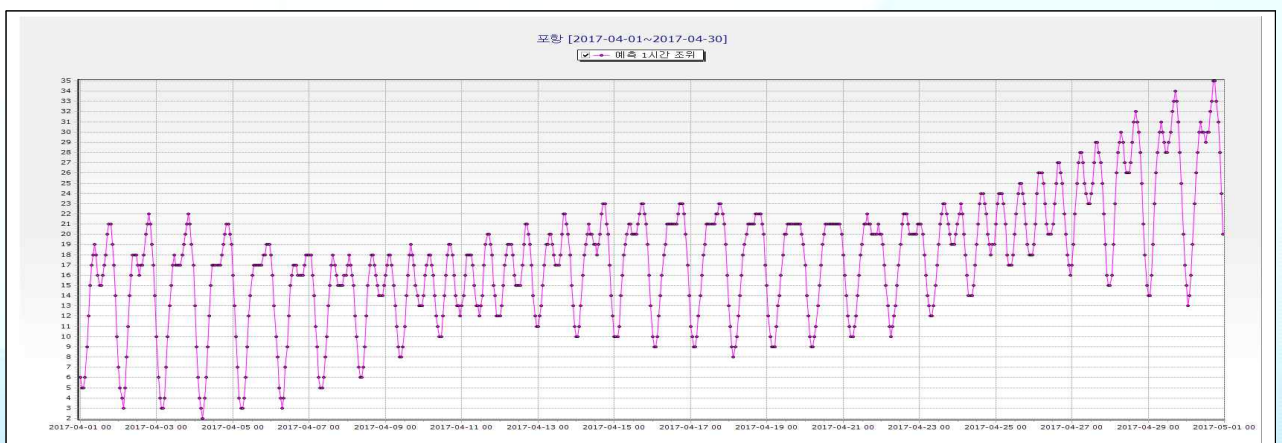


그림 3. 2017년 4월 동해안 포항지역 조석예보



해난사고 현황

제공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 최근 5년('11~'15년) 해상조난사고 현황

최근 5년 동안 선박사고는 총 8,592척(58,783명)이 발생하여 선박 8,255척(96.1%) 및 선원 57,949명(98.6%)이 구조되고, 선박 338척(3.9%) 및 선원 807명(1.4%)이 사망(623명)·실종(211명)되는 인명피해 발생.

구분	발생		구조		구조불능		인명피해	
	척	명	척	명	척	명	사망	실종
계	8,592	58,783	8,255	57,949	338	807	623	211
2015년	2,740	18,835	2,639	18,723	101	112	77	35
2014년	1,418	11,180	1,351	10,695	68	458	396	89
2013년	1,052	7,963	1,015	7,896	37	67	48	19
2012년	1,632	11,302	1,570	11,217	62	85	64	21
2011년	1,750	9,503	1,680	9,418	70	85	38	47

■ 월별 선박사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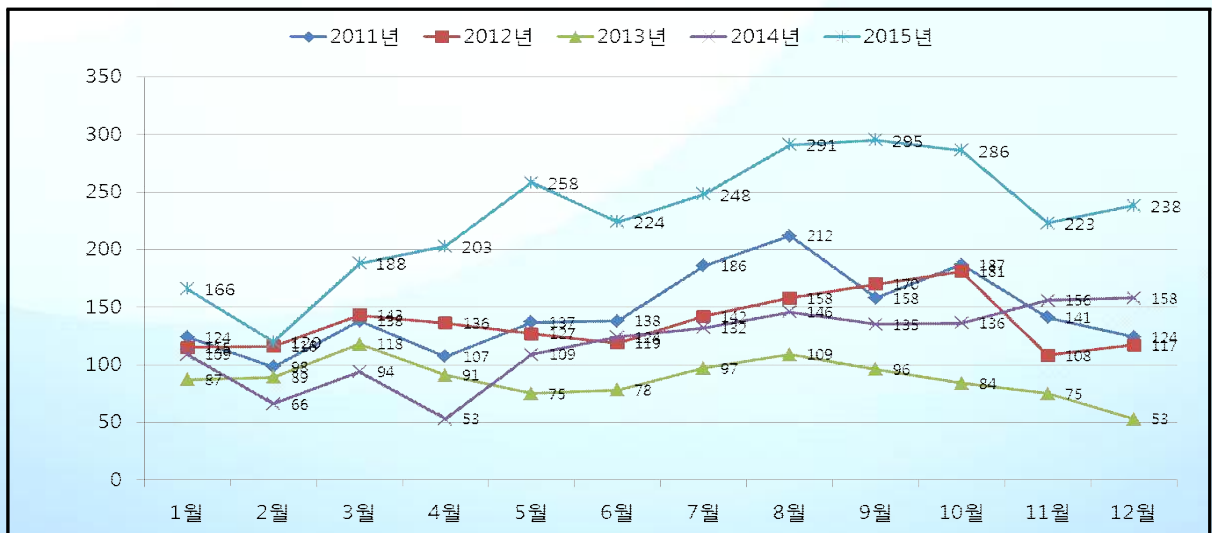


그림 1. 월별 선박사고 건 수(2011~2015년)

▶ 4월 해상조난사고 현황

- 4월의 해상조난사고는 어선 353척, 레저선박 65척, 예부선 41척 등 총 586척 발생
- 유형별로는 기관손상 170척, 충돌·접촉 88척, 추진기손상 55척, 침수 52척의 순으로 발생

☞ 4월 주요 해상조난사고는 부록2. 를 참고

해양 안전정보

- 최근 5년간 4월 선박사고는 평균 117여척이 발생하고, 선박의 정비불량에 따른 기관손상 및 추진기 손상 사고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봄철 서·남해상에서 주로 발생하는 해무로 인한 충돌·접촉, 좌초 사고가 다수 발생
- 특히 이 시기 강풍을 동반한 기상악화에 따른 사고가 예상되므로 정박 중인 선박은 고박을 철저히 하고, 기상예보 및 항행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여 사고예방 철저

해난사고 방지대책

- 갑작스런 기상 불량에 대비한 안전 운항 및 조치
 - 4월 해상기상은 순식간에 악화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업을 위해 출어 시에는 선체, 기관, 안전장비 및 배수구 정비 등 준비 철저
 - 계류·정박된 어선은 계류 시 선박 간 마찰에 대비하여 방현대 보강, 간조 시에 대비하여 충분한 길이의 계류색 사용 등 수시로 선박 안전여부 확인
- 낮과 밤의 기온차로 인한 안개 발생에 유의
 - 짙은 안개(국지성 포함)가 자주 발생하므로 전방 견시, 정박 및 어로등 게시 철저
 - 상호협조를 위해 가급적 선단선 편성, 가시권 내 조업 및 나홀로 조업 자제

- 본격적인 성어기에 대비하여 선체 및 기관 등 사전 정비
 - 본격적인 성어기로 출어선은 선체, 기관, 조타기 등 사전점검 철저
- 환절기 화재사고 예방에 철저
 - 난방기구 미사용 시, 전원 코드를 분리하여 화재사고 발생원인 사전 차단
 - 선체 재질이 FRP 선박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해수를 이용한 화재 진압이 대단히 어려우므로 신속한 화재에 적합한 폼(FOAM) 소화기 비치 필요
- 유도선 · 낚시어선 안전향해 준수
 - 갯바위, 절벽 근처 등 위험한 곳에서 낚시 등 레저활동 자제 및 낚시 등 레저활동 시 반드시 구명동의(조끼)를 착용 등 자체 안전조치
 - ※ 구명동의(조끼) 착용시 생존율 : 90%, 미착용시의 생존률 43%
- 1인 조업선 등 소형어선의 자체 안전대책 강구 철저
 - 해양사고의 인지와 신고가 곤란하므로 안전을 위해 구명동의(조끼)는 반드시 착용, 해양사고 발생 및 목격시 긴급구조기관에 신고

해양사고 예보

제공 : 해양안전심판원

▶ 최근 5년('12~'16년)4월 해양사고 현황

최근 5년간 4월의 사고발생률은 1년 중 낮은 수준(5년간 월평균 140건, 4월 115건)이나, 충돌사고는 전월(3월) 대비 22.4% 증가(3월 58건 → 4월 71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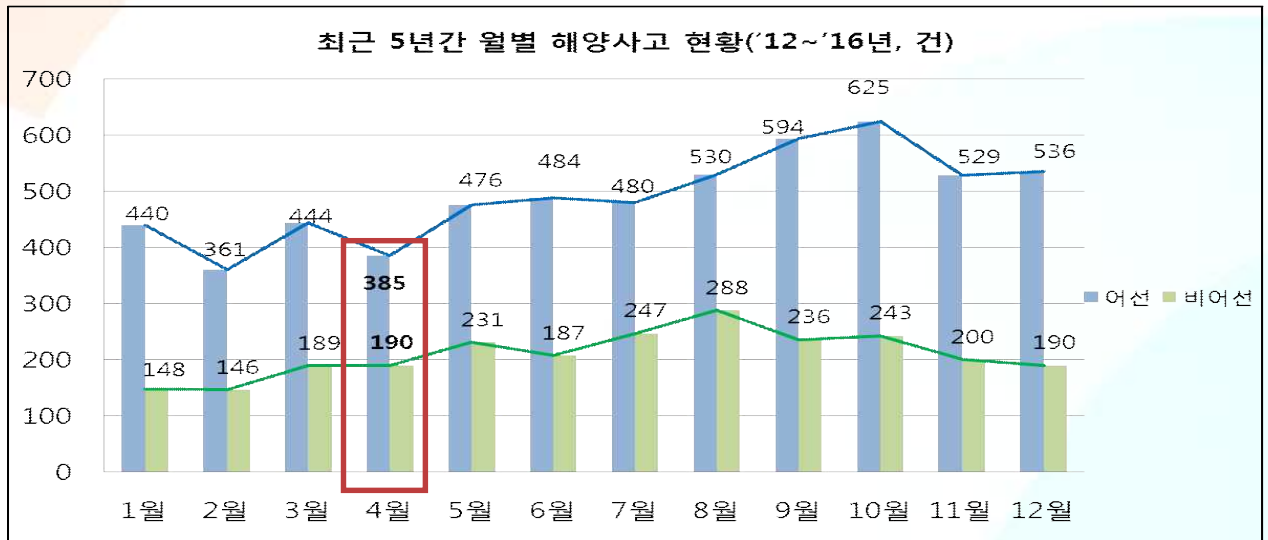


그림 1. 최근 5년 월별 해양사고 건 수(2012~2016년)

- 4월 선종별 해양사고 : 총 575건 발생
 - 어선 385건, 기타선 81건, 예부선 46건, 화물선 28건, 여객선 19건, 유조선 16건 순으로 발생
- 4월 사고유형별 해양사고
 - 기관손상 178건, 안전운항저해 89건, 충돌 71건, 인명사상 38건, 좌초 30건, 화재·폭발 25건, 접촉 13건 등의 순
- 최근 5년간 월별 충돌사고 현황(단위 : 건)

월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건수	71	55	58	71	71	72	86	93	107	106	98	107

※ 4월 충돌사고 선종별 : 어선 40건, 예부선 10건, 화물선·유조선 8건, 여객선 3건

☞ 4월 주요 해양사고 사례는 부록3. 을 참고

수온 동향

▶ 4월 연안 수온 전망

- 4월의 연안 월평균 수온은 동해가 9~16℃로 평년보다 1~2℃ 범위의 높은 수온분포를 보이고, 남해 11~16℃, 서해 8~14℃로 각각 평년보다 1℃ 내외의 높은 수온분포를 보일 것으로 전망
 - 동해 연안: 9 ~ 16 ℃ 분포
 - 남해 연안: 11 ~ 16 ℃ 분포
 - 서해 연안 : 8 ~ 14 ℃ 분포

▶ 지난달(3월) 수온 분포

- 3월의 연안수온 : 월평균 3.9~14.3℃ 범위로 분포
 - 동해연안 : 10.2 ~ 11.0℃
 - 남해연안 : 8.5 ~ 14.3℃
 - 서해연안 : 3.9 ~ 7.2℃
- 인공위성 자료로 분석된 한반도 주변 해역의 3월 표층 수온
 - 동해 근해역 : 11 ~ 14℃로 평년에 비하여 1 ~ 2℃ 범위의 높은 수온 분포
 - 남해 근해역 : 8 ~ 17℃로 평년에 비하여 1.5℃ 내외의 높은 수온 분포
 - 서해 근해역 : 5 ~ 8℃로 평년에 비하여 1℃ 내외의 높은 수온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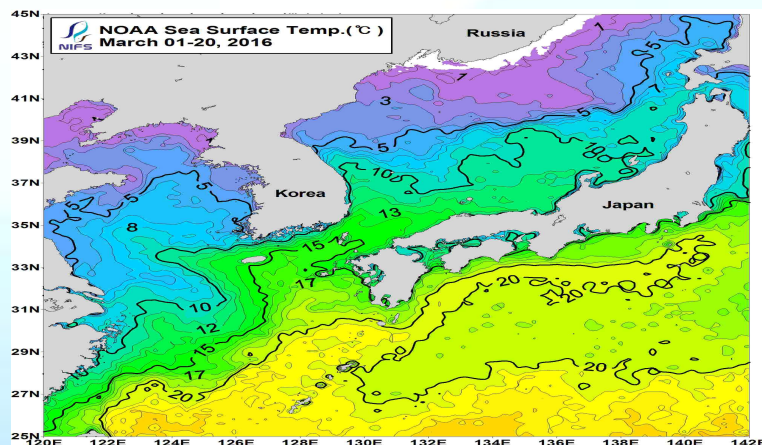


그림 1. 3월 광역 수온 분포(위성)

어장 분포

4월 어황 정보

주요 어망별 어황

- 대형선망어업 : 고등어, 전갱이, 눈통멸, 갈치, 정어리 등을 대상으로 제주 주변해역~대마도 주변해역에 걸쳐 어장이 형성되겠음. 4월 10일부터 5월 9일까지는 휴어기 실시될 예정이며, 전체적인 어황은 평년비 부진할 것으로 전망
- 멸치어업 : 멸치 금어기가 실시되며(4월 1일~6월 30일까지), 울산~기장 연안으로 산란을 위해 내유하는 어군을 대상으로 자망어업에 의해 어장이 형성. 전체적인 어황은 평년수준으로 전망
- 근해안강망어업 : 서해 중부해역~제주 서부 근해에 걸쳐 어장이 형성 되겠으며 아귀류, 참돔, 갈치, 참조기 등을 대상으로 조업할 것으로 전망. 전체적인 어황은 평년수준 또는 평년비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
-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 삼치, 갈치, 병어, 참돔 등을 대상으로 제주 남서부 근해~남해 중부해역에 걸쳐 중심어장이 형성될 전망
-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 제주도 남서부 근해부터 남해 동부해역에 걸쳐 아귀류, 참돔, 황돔, 민어, 가자미류 등을 대상으로 어장이 형성
- 서남구중형저인망어업 : 눈볼대, 민어, 아귀류, 가자미류 등을 대상으로 제주 남부 근해~대마도 북서쪽 근해에 걸쳐 조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 경북 및 강원연안에서 도루묵, 기름가자미, 청어, 새우류 등을 대상으로 조업이 이루어질 전망
- 오징어채낚기어업 : 한 달간의 금어기(4월 1일~4월 30일)에 들어가겠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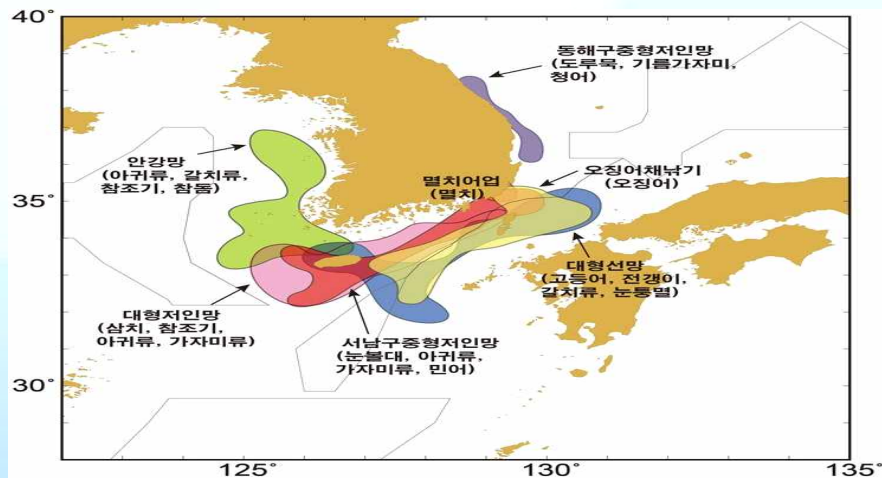


그림 2. 어업별 예상어장도(4월)

주요 어종별 어황

고 등 어	제주 주변 해역 및 대마도 주변해역을 중심으로 어군 밀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나, 주업종인 대형선망어업에서는 오는 4월 10일부터(~5월 9일까지) 한어기 및 산란기를 맞아 휴어기가 실시. 전체적인 어황은 평년수준 또는 평년비 부진 할 것으로 전망.
살오징어	계절적인(1~3월) 남하회유 이후 북부 동중국해(제주도포함)로부터 다시 어군이 북상하는 시기로 남해 동부해역 및 동해 남부해역에서 일부 어장이 형성, 연중 최한어기로 어군밀도는 낮을 것으로 예상. 특히 주업종인 채낚기어업의 금어기(4월 1일~30일)가 실시되며, 전체적인 어황은 평년비 부진할 것으로 전망
멸 치	권현망어업이 4월 1일부터 금어기(6월 30일까지)에 들어가겠으며, 울산~기장 주변해역에서 자망어업에 의한 일부 어장이 형성될 전망. 전체적인 어황은 평년수준일 것으로 전망.
갈 치	제주 주변해역~남해 중부해역에 걸쳐 중심어장이 형성되겠으나, 연중 한어기로 어군밀도는 낮겠음. 어황은 평년수준 또는 평년비 순조로울 것으로 전망되나, 미성어(풀치)에 대한 어획비율이 여전히 높아 소형 개체를 대상으로 한 어획자제가 필요.
참 조 기	제주 서부 먼 바다를 중심으로 제주 주변해역에서 어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나, 연중 한어기로 어군밀도는 낮겠음. 근해유자망 어업은 4월 하순부터 참조기에 대한 금어기(4월 22일~8월 10일까지)가 시행 될 예정이며, 전체적인 어황은 평년비 부진할 것으로 예상.
전 쟁 이	제주 주변해역과 대마도 주변해역에서 중심어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 산란기(2~4월)를 맞아 산란장인 동중국해와 큐슈서부해역에서 주로 어군이 분포하는 시기로 우리어장에서의 어군밀도는 낮을 전망. 주업종인 대형선망의 휴어기 실시 및 자원동향을 바탕으로 보면, 전체적인 어황은 평년비 부진할 것으로 전망.
기 타	그 외, 망치고등어는 동중국해를 중심으로 분포하는 시기로, 제주 남동부 근해에서 일부 어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나 어황은 저조 할 것으로 전망. 말쥐치는 제주 남동부~서해 남부(전남지역) 연·근 해에 걸쳐 어장이 형성되어, 평년비 순조 또는 평년수준의 어황을 보일 것으로 전망.

지난달(3월) 어황

- 갈치, 참다랑어는 평년비 순조로웠고, 망치고등어는 평년 수준을 기록
- 고등어, 멸치, 살오징어, 전갱이, 참조기는 평년비 부진

4월의 해양기상부이 해상풍(서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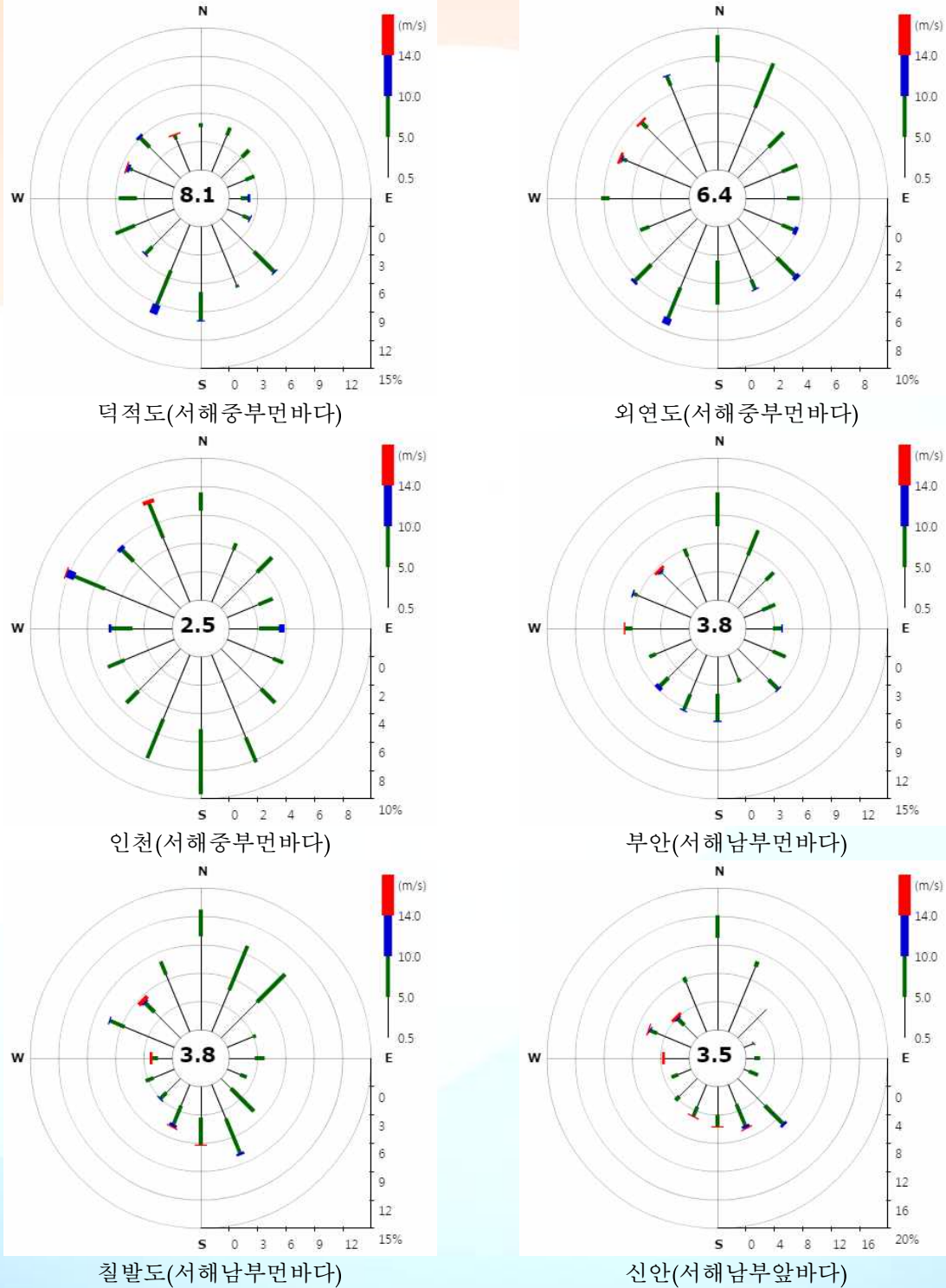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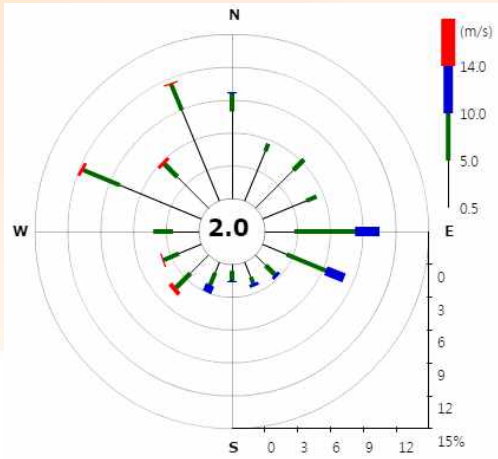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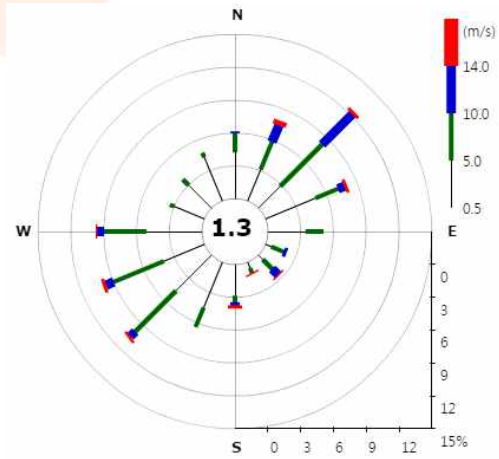


그림1 . 해양기상부이 관측 해상풍('16년 4월, 바람장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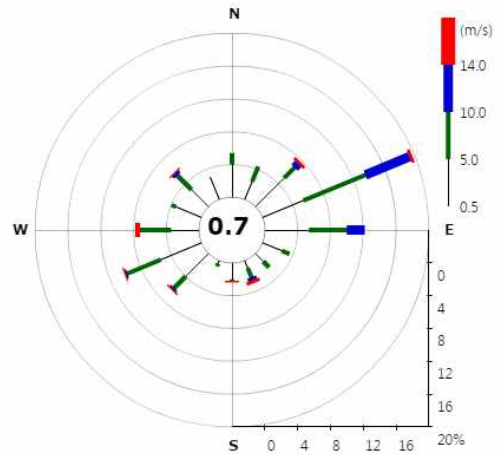
4월의 해양기상부이 해상풍(남해·제주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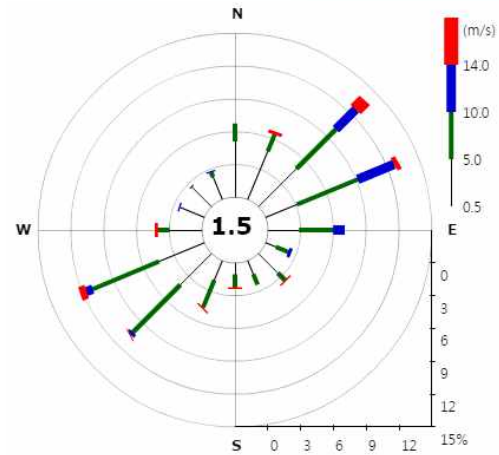
추자도(남해서부서쪽먼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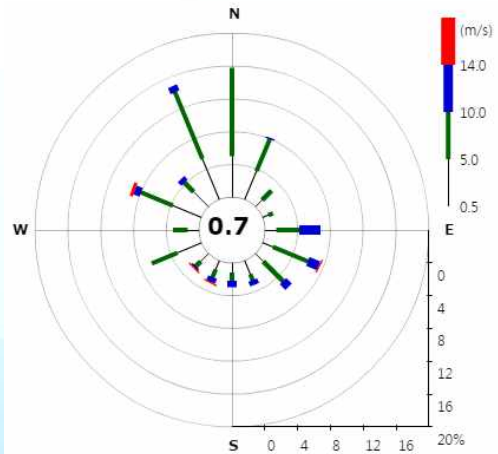
거문도(남해서부동쪽먼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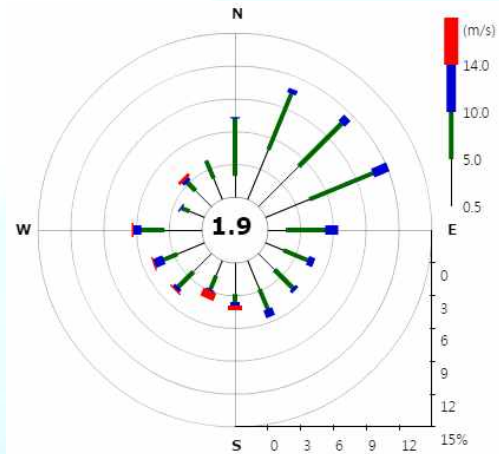
통영(남해동부먼바다)



거제도(남해동부먼바다)



마라도(제주도남쪽바다)



서귀포(제주도남쪽바다)

그림2 . 해양기상부이 관측 해상풍('16년 4월, 바람장미)

4월의 해양기상부이 해상풍(동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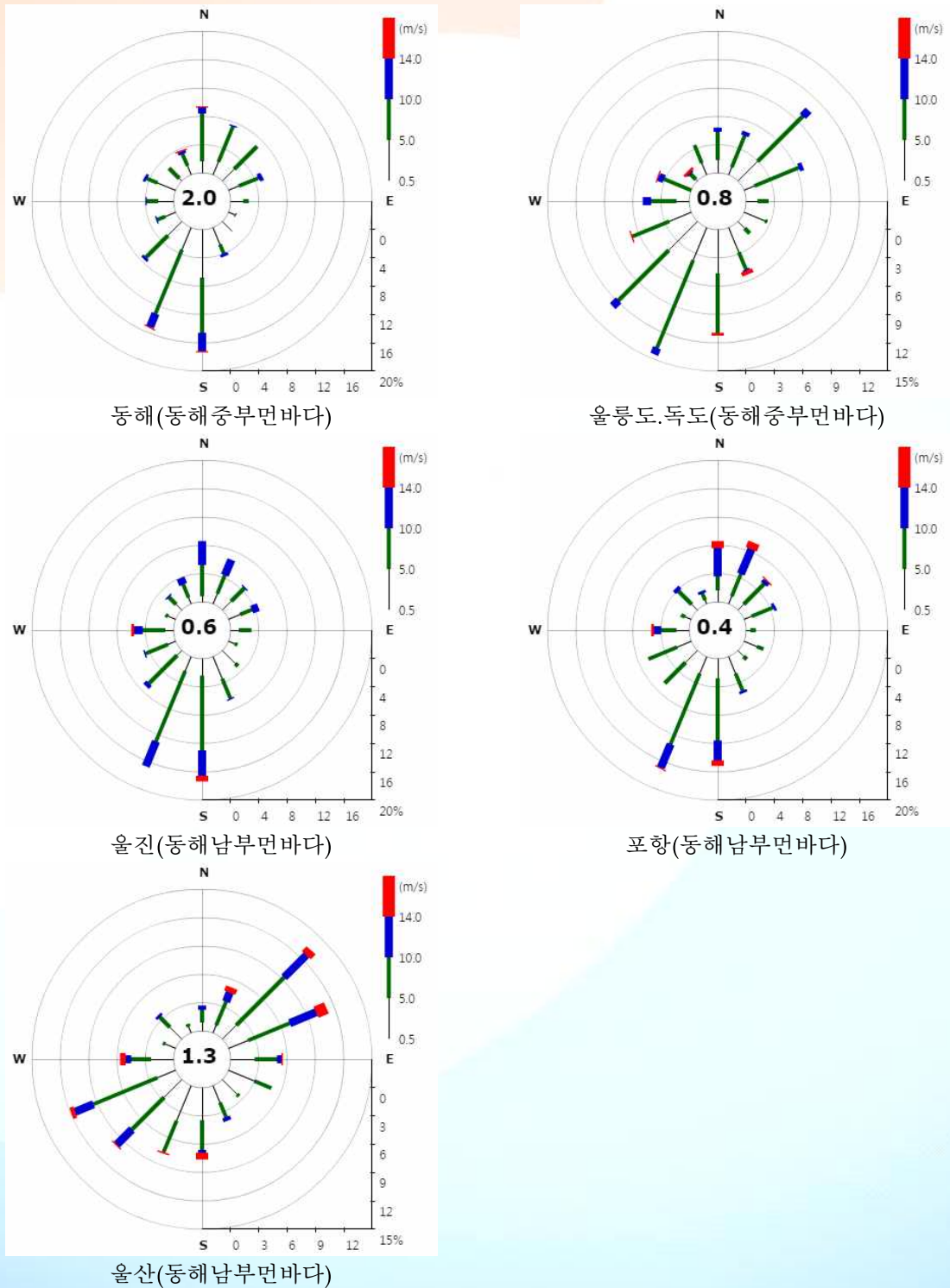


그림3 . 해양기상부이 관측 해상풍('16년 4월, 바람장미)

4월의 주요 해상조난사고 일지

제공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일 시	선 명	피 해	사고원인
'16. 4. 17 01:29	오션**호 3,524톤(자동차운반선) 승선원 5명	선박 좌초	'16. 4. 17. 01:29경 부산 남외항에서 묘박 중이던 자동차운반선 오션**호가 기상악화로 달이 끌리면서 해안가에 좌초 ※ 당시기상 : 남동풍, 12~18m/s, 파고 2~3m



인명 구조장면



좌초 장면

4월의 주요 해양 사고 사례

제공 : 해양안전심판원

1. 좁은 수로 항법 미준수로 인한 충돌사건

사건명		화물선 A호·어선 B호 충돌사건
사건 개요	선박	A호 : 화물선, 40톤, 디젤기관 305kW 1기 B호 : 어선, 1.18톤, 가솔린기관 147kW 1기
	일시 장소	2015. 4. 11. 17:03분경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화태대교의 교각 8번과 9번 사이 부근 해상
	피해	A호 : 없음 B호 : 선체파손, 승객 2명 사망
	상황	A호가 출항하여 기관장이 선장의 직무를 수행하며 항해중이었고, B호는 선장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타기의 키를 잡고 귀항하던 중, 상기 일시 장소에서 양 선박이 충돌
	해상 기상	맑은 날씨, 시정 양호, 파도 0.5m
원인	○ A호의 기관장이 선장을 대신하여 운항중 좁은 수로에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나, B호도 음주상태에서 과속으로 항해	
교훈	○ 선박 항행의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정 선박 직원의 최저 승무 기준은 준수되어야하며 무자격자에 의한 선박의 운항은 금지 ○ 좁은 수로는 일반적인 항법만으로서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방지할 수 없어, 사전 예방적인 차원에서 우측 통항 원칙을 지켜야 함 ○ 음주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할 경우 사고 유발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종을 지시하는 것을 금지함	
충돌 상황도	<p>충돌 상황도</p>	

2. 경계 소홀에 따른 충돌사건

사건명		액체화학산적운반선 C호·컨테이너운반선 D호 충돌사건
사건 개요	선박	C호 : 케미컬운반선, 497톤, 디젤기관 1,029kW 1기 D호 : 컨테이너운반선, 89,907톤, 디젤기관 68,520kW 1기
	일시 장소	2015. 4. 19. 4시25분경, 중국 CJK 정박지 동방 약 9마일 해상
	피해	C호 : 우현 4번 윈탱크 D호 : 없음
	상황	C호가 상하이항 인근 해상을 통과할 무렵, 안개로 인해 시정이 약 0.5마일로 제한되었으나, 항해사 혼자 당직을 서게 하였으며, 선위 확인 및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정박선인 D호와 충돌사고 발생
	해상 기상	파고 약 3~4m, 안개로 시정 제한, 북동풍 초속 10m
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타수 없이 항해사 혼자 항해 당직을 서며 경계를 소홀히 함 	
교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해 당직자는 운항 환경상의 상황에 맞게 이용가능한 수단을 이용하여 지속적인 경계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함 ○ 항해사와 조타수의 업무는 분리되어야 하며, 선장은 조타수가 선교에서 항해당직에 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충돌 상황도	<p>C호 침로 60도 속력 8노트</p> <p>D호 선수방위 360도 속력 0노트(정박중)</p>	